

## 새로운 조경수 73

△ 완숙된 석류

### 1. 종류와 생육특성

석류나무는 이란(IRAN), 파키스탄(PAKISTAN),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인도(INDO), 지중해연안, 히말라야 등에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옛부터 생육하고 있는 것이 있으나 자생종은 아니고, 위 분포지역의 것이 중국을 거쳐 도입된 것이며, 도입시기가 언제인지 확실치 않지만 오래 되어서 귀화식물(歸化植物)로 되어 있다.

석류나무과(PUNACACEAE) 석류나무속(PUNICA)에는 석류나무 단 일종(單 1種)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조경용, 분재용으로 개발된 변종(變種)과 품종(品種)을 포함하여 50여종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석류나무는 특히 내한력(耐寒力)이 약하기 때문에 제주도, 경남, 전남, 경북 및 전북의 일부 해안지방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야외식재(野外植栽)는 피하는 것이 좋다.

생육적지는 양지(陽地)바른 곳으로 표토층(表土層)은 다소 점질토양(粘質土壤)으로 두께가 얕고, 하층은 자갈이 다소 섞인 사질양토(砂質壤土)로 배수가 잘 되는 곳이 좋다.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표 1〉 석류나무의 종류

국명	학명	일본명	영명
석류나무	<i>Punica granatum L.</i>	ザクロ	Common Pomegranate
왜성석류나무	<i>Punica granatum L. var. nana PERS.</i>	ヒメギクロ	Dwarf Pomegranate
홍색겹석류나무	<i>Punica granatum L. var. flore-pleno PERS.</i>	アカヤエザクロ	Double Red Pomegranate
백색겹석류나무	<i>Punica granatum L. var. flore-albopleno PERS.</i>	ハクヤエザクロ	Double White Pomegranate
황색겹석류나무	<i>Punica granatum L. var. flava flore pleno PERS.</i>	キンヤエザクロ	Double Yellow Pomegranate
황백색석류나무	<i>Punica granatum L. var. albescens PERS.</i>	コウハクザクロ	Yellow-White Pomegranate
왜성겹석류나무	<i>Punica granatum L. f. flore-pleno HORT.</i>	ヒメヤエザクロ	Dwarf Double Red Pomegranate
황색석류나무	<i>Punica granatum L. var. flava PERS.</i>	キンザクロ	Yellow Pomegranate

〈표 2〉 수종별 생육특성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 지역	생육입지
석류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엽 활엽수 소교목으로 수고 10m, 직경 30cm까지 자란다.</li> <li>잎은 대생(對生)하고 잎자루가 짧으며, 잎의 모양은 장타원형 또는 도난형임</li> <li>잎의 길이는 4~6cm, 둔두</li> <li>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표면에 광택(光澤)이 남는다.</li> <li>잎은 4월 하순~5월 상순에 피며, 다른 나무에 비하여 늦다.</li> <li>새가지의 끝은 붉은 빛깔이다.</li> <li>열대, 아열대지방에서는 상록성(常綠性)이고 난대 및 온대지방에서는 낙엽성임</li> <li>어린가지의 끝이 때때로 침상(針狀)으로 변함</li> <li>수피가 평편하고 미끄러우며 수령(樹齡)이 많아질수록 수간(樹幹)이 왼쪽으로 뒤틀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은 홀꽃으로 5~6월에 붉게 핌</li> <li>당년 가지 끝의 짧은 화경(花梗)에 1~5개가 피며, 때로는 액출(腋出)하는 때도 있음</li> <li>꽃은 종모양이고 꽃잎은 5~8개로 피침형이며, 지름은 25~35mm임</li> <li>꽃은 양성화(兩性花) 뿐만 아니라 단성화(單性花)도 핌</li> <li>열매는 구형이고, 등홍색(橙紅色) 또는 황홍색(黃紅色)으로 익으며, 특히 헷빛이 닿은 면은 색이 진함</li> <li>열매의 지름은 6~8cm이고 초가을에 익으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벌어짐</li> <li>종자는 다즙(多汁)한 외종피(外種皮)를 가지고 있고, 그 빛깔은 홍색임</li> <li>정선 종자(精選種子) 1ℓ 당 16,000개, 1kg 당 36,000개 정도임</li> </ul>	이란, 인도, 파基 스탄, 아프가니스 탄, 지중해연안, 히말라야 등	양자쪽으로 표토 는 점질토양이고, 하충토는 자갈이 다소 섞인 사질양 토로 배수가 잘 되는 곳

석류나무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 지역	생육입지
왜성석류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왜성활엽수 소관목으로 키가 1m정도 자람</li> <li>신초(新梢)는 암홍색(暗紅色)이고 잎은 석류나무보다 작음</li> <li>가지가 연약하여 열매가 열면 가지가 아래로 처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은 석류나무보다 작고, 꽃이 피는 시기는 여름과 가을로 나누어 두번피며, 여름에 편 꽃에서만 결실이 됨</li> <li>열매의 지름이 3.0~4.5cm로 석류나무 열매의 반 정도 크기임</li> </ul>	개발품종	양지쪽으로 표토는 점질토양이고, 하충토는 자갈이 다소 섞인 사질양토로 배수가 잘되는 곳
홍색겹석류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지와 잎의 모든 특징은 석류나무와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이 겹꽃이고, 열매가 열지 않는 것이 석류나무와 차이점임</li> </ul>	"	"
백색겹석류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지와 잎의 모든 특징은 석류나무와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이 백색 겹꽃이 피고, 열매가 열지 않는 것이 석류나무와 차이점임</li> </ul>	"	"
황색겹석류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지와 잎의 모든 특징은 석류나무와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이 황색 겹꽃이 피고, 열매가 열지 않는 것이 석류나무와 차이점임</li> </ul>	"	"
황백색석류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지와 잎의 모든 특징은 석류나무와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이 황백색으로 피는 것만이 석류나무와 차이점임</li> </ul>	"	"
왜성겹석류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지와 잎의 특징은 왜성석류나무와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이 겹꽃이고 열매가 열지 않는 것이 왜성 석류나무와 차이점임</li> </ul>	"	"
황색석류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지와 잎의 특징은 석류나무와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이 황색으로 피는 것이 석류나무와의 차이점임</li> </ul>	"	"

## 2.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석류나무는 봄에 나오는 분홍색 새순의 아름다움과 초여름에 종모양의 분홍색 꽃이 가지 끝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자태(姿態)만으로도 충분한 관상가치가 있고, 특히 가을에 붉게 익은 열매가 턱턱 벌어진 사이로 붉은 씨알이 앞다투어 알알이 내밀고 있는 자태는 보석같이 영롱하고 아름다우며, 또 보기만 하여도 시큼하여 입에 군침이 도는 독특한 나무이다.

석류나무는 내한성(耐寒性)이 약해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온대남부 이남지역)에서만 정원수(庭園樹)로 식재하여 왔고, 온대중부 이북지역에서는

분식용소재(盆植用素材)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정원수로 식재시에는 가급적 창가까이 식재하여 석류나무의 정서(情緒)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석류나무는 뿐리목에서 맹아(萌芽)가 많이 발생하고 가지가 조밀(稠密)하게 착생하므로 생울타리 조성용으로 적합한 수종이다.

## 3. 번식 및 양묘방법

석류나무는 과종, 삽목, 분주 등의 방법으로 번식하며, 과종에 의한 실생묘 양성은 열매가 익어 벌어지기 시작할 무렵(10~11월)에 열매를 채취하여 바로 씨앗을 빌라내서 손으로 비비어 외종피(外種皮)를 분리시켜 물로 씻어 종자를 정선



▲ 석류나무의 개화전경

한 후 바로 직파(直播)를 하든가, 습한 모래와 섞어서 이듬해 파종시(4월)까지 저온저장을 하여둔다. 파종 후 평균발아율은 45%(32~62%)정도로  $m^2$ 당 50cc 또는 22g정도를 조파 또는 산파의 방법으로 파종하고 파종 후 20~30일이면 발아가 끝난다.



▲ 석류나무의 꽃과 열매



▲ 왜성겹석류나무

$m^2$ 당 발아기대본수는 350본, 특묘본수는 250본, 평균묘고는 25cm 정도가 되고, 상체(床替)는 이듬해 4월에  $m^2$ 당 25본 정도로 한다. 삽목묘양성에 있어서 삽목시기는 봄, 여름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나 봄에 삽목하는 것이 활착율(70~80%)이 높기 때문에 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삽수(挿穗)는 전년지(前年枝)에서 굵고 충실한 가지나 맹아지(萌芽枝)를 채취하여 15~30cm 길이로 잘라서 예리한 칼로 밑부분을 엇깎아서 조제한 다음  $m^2$ 당 200본정도 삽목을 하고 노지(露地)삽목시에는 반드시 해가림을 설치하여 주고 관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분주묘 양성은 뿌리목에서 돌아난 맹아의 기부(基部)에 15~20cm정도 두께로 흙을 덮어서 발근을 촉진하여 주고 1년 후에 굴취하여 분주한다.